

기능성 병뚜껑 특허출원 증가

최근 국내에서 기능성 병뚜껑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인 웰리엄 페인터가 맥주병에서 탄산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이 불만스러워 지금의 콜라병 뚜껑과 같은 왕관형 병뚜껑을 발명해 미국에서 특허등록 받은 후 병뚜껑에 관한 다양한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까지 지난 20년간 병뚜껑에 관한 특허출원은 649건에 달했으며 그 중 154건이 특허 등록 되었으며, 현재 심사대기 중인 특허출원의 심사가 끝나면 특허등록 건수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과거에는 주로 병목에서 밀폐의 완전성이나 병뚜껑 개방의 용이성과 같은 병뚜껑의 고유기능을 향상시킨 병뚜껑이 특허출원 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고유기능 이외에 위조방지, 첨가물 수용 및 안전개봉과 같은 부가기능을 포함하는 기능성 병뚜껑의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전체 병뚜껑 특허출원에 대한 기능성 병뚜껑의 특허출원 비율은 1989-93년에는 25.0%, 1994-98년에는 29.0%, 1999-2003년에는 51.1%, 2004-08년에는 70.8%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기능성 병뚜껑의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보조첨가물을 수용하는 병뚜껑이 208건으로 전체의 51.1%, 위조방지를 위한 병뚜껑은 44건으로 10.8%, 안전 병뚜껑은 36건으로 8.8%에 달했다.

특허청에서는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에 관한 지식재산 경영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지식재산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지식재산경영 종합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 특허맵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설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화학저널 2009/02/25>